

디지털 유목민 시대가 온다!

오성민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돌궐 제국을 부흥시킨 어느 영웅의 비석에 새겨진 글이다. 닫힌 사회는 망하고 열린사회만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며 성 쌓기를 거부한 이상주의자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13세기 동·서양의 통합을 갈망했던 유목민의 질주가 이 시대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13세기의 그것이 칭기즈칸의 칼날이 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면, 이 시대의 그것은 디지털 코드가 되어 세계인의 가슴에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질주의 시대고 이동의 시대다. 거리 곳곳마다 휴대폰의 물결이 넘쳐 난다. 젊은 청년들은 움직이는 내내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본다. 이제 더 이상 공간은 무의미해 보인다. 사무실에서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한다. 그들은 디지털 코드를 타고 전 세계 구석구석을 내달린다. 13세기 유목민들이 소통을 위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질주했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유목민들은 디지털 코드를 통해 소통하고 질주한다.

무한소통의 시대

우리는 무한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통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다. 진정한 소통은 이성과 영혼의 자유로운 교류다. 공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욕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맞은 1일 생활권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활발한 토론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때론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마녀사냥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폐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소통은 소통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은밀한 통제는 또 다른 구속을 낳을 뿐이다.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 정보가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다수의 선택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난다. 네이버의 지식검색에 물어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정보의 바다를 향해하다 보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나에게 어떠한지, 즉 좋은지 혹은 싫은지 여부이다. 옳고 그름은 결국 세대를 내려오면서 고착화된 관습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닫힌 공간에서는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로 규정한다. 가족의 테두리를 기본으로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다양한 관계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꿈을 꿀 줄 아는 많은 디지털 유목민들을 기다려 본다.

“이제 다시 유목민의 시대다.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시대, 공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 꿈이 있는 세상. 하여, 꿈꾸는 자의 자유로움을 구가할 수 있는 세상. 유목민의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에 모바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지만, 부모님의 강요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우리는 정착민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었다.

만주별판을 누볐던 기마민족의 후손이며, 유라시아 대륙을 질주했던 몽골의 형제였던 우리지만, 반도의 닫힌 공간에 머물게 되면서 유목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잊고 말았다.

사고의 자유로움과 유목민

사고의 자유로움은 유목민의 특권이다. 바람과 함께 질주하던 유목민들은 내일への 꿈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일 때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소유의 욕망도 정착의 인력함도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이제 다시 유목민의 시대다.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시대, 공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 꿈이 있는 세상. 하여, 꿈꾸는 자의 자유로움을 구가할 수 있는 세상. 유목민의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에 모바일이 있다.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가 회자된다. 이 두 단어를 모르면 대화를 이어 나가기 힘들 정도다. 언제 어디서든(유비쿼터스) 통합되고 융합된(컨버전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화가 핵심이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모바일화된 디지털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 무선전화·무선랜을 비롯한 각종 무선 장비들, 휴대전화·노트북·PMP 등의 휴대용 기기들.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다. 음악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TV가 있고, 게임이 있다. 뭐든지 바라기만 하면 이뤄주는 마법의 상자처럼.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룬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해 한다. 즐거움은 새로운 진리다. 즐겁지 않은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현실을 즐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 휴대폰 속의 작은 세상에서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TV를 즐기면서 모두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게임을 해서 뭘 얻는데?” 가끔 듣는 어른들의 항변이다. 초원을 질주했던 유목민들은 질주를 통해서 뭘 얻었을까?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았다. 다만, 앞을 보고 달리면서 행복했고 자유로웠을 뿐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게임을 하면서 자유롭게 행복하면 그 뿐이다. “공부를 해서 뭘 얻습니까?” 다시 묻고 싶은 질문이다. 공부를 해서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일을 위한 나’만이 내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나’도 나다. 오늘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내일도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핵심 원동력은 ‘모바일’

모두들 모바일에 관심이 많다.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고 모든 기기의 모바일화가 다가오는 시대니 당연한 일이다. IT와 전혀 무관한 굴뚝기업들도 차세대 먹거리를 염두에 두고 모바일 시장을 기웃거리는 게 현실이다. 잘 나가는 모바일 기업이나 IT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도 저도 안되면, 똑딱거리고 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장차 닥칠 모바일 세상에 대비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모바일은 그저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바일은 진정한 의미의 유목민 시대를 이끌어 갈 동력이다. 다가올 유목민의 시대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자유로운 꿈을 꾸는 시대다. 모바일을 돈벌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바일이야말로 말로 인류의 오랜 염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꿈을 꿀 줄 아는 많은 디지털 유목민들을 기다려 본다. ●